

“학교 안으로 들어온 스터디카페… 공부할 맛 나요”

경신여고 ‘365스터디룸’ 개소

이정선 광주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고교학점제 전 인프라 조성 목적
AI활용 공간혁신… 학생 자율 운영
학습효과 증진·비용 절감 효과도
올해 말까지 34개교 목표로 추진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활동 공간인 365스터디룸이 들어선다. 광주시교육청이 곧 시행 될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광주 북구 경신여고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65스터디룸’ 개소식이 열렸다.

365스터디룸은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된 형태의 자치학습공간으로, 이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개별학습은 물론 토론, 진학상담,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활용이 가능하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운영규칙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AI선도학교로 지정된 경신여고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총 3개의 교실과 복도를 365스터디룸 및 복합공간으로 단장했다.

먼저 2층의 아이런(I learn)실에서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1일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365스터디룸’ 개소식에서 교사로 부터 모듬수업이 가능한 책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양배 기자

교사와 학생들의 노트북을 무선으로 연동시킨 후 전자칠판에 띄우는 방식의 학습이 가능하다. 같은 층의 멀티버스(다용도 복합공간)실에는 휴식과 토론, 영화관람 등이 가능한 시설이, 학교간 공동교육과 정실에는 ‘빛고를 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강좌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기가 갖춰졌다.

3층에 위치한 365스터디룸은 AI안면 인식기로 신원확인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다. 내부에 설치된 CCTV 4대는 학생들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사고 위험을 감지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스터디룸 담당 교사는 교내의 어디서든 휴대 전화를 통해 스터디룸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시 개방되는 만큼, 경찰 등이 바로 출동 가능한 긴급 호출 버튼도 설치해 스터디룸의 보안성도 높였다. 천장에 설치된 산소토출구는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 학생들의 인지 기능 강화 등 쾌적한 면학 환경을 조성한다.

넓직한 공간에는 분리형 칸막이 좌석부터 1인석과 2인석으로 분리 가능한 노트북 좌석, 긴 소파와 테이블 등이 조화를 이루며 배치됐다.

학생들은 시교육청이 배부한 노트북이나 학습교재 등을 가지고 와 언제든(평일 오전 7시~밤 12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열람실 형태의 폐쇄된 공간에서 학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자율학습을 하던 기존 학교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다.

경신여고 학생회장 장채민(19)양은 “기존 교실과 비교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며 “시설 스터디카페는 한달 이용료가 10만원 이상인데, 학교에 이런 공간이 생기니 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 같다. 다만 학년별로 구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365스터디룸의 수용 가능 인원은 대략 80명. 전교생 650명을 모두 수용하기엔 공간이 부족한 만큼, 학교 측은 △교육복지사각지대 학생 △학습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365스터디룸은 단순히 책을 읽고 성적을 올리는 차원이 아닌,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 전반적인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4차산업혁명과 에듀테크의 시대에는 누구나 편히 와서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광주 지역 학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365스터디룸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 34개 고교(일반고 우선 추진)에 365스터디룸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온라인에서 5·18 교과서 본다

기념재단, 초·중 온라인 콘텐츠 5·18교육 전국화… 추가 개발도

5·18기념재단이 5·18교과서(초·중등)를 모바일 등에서도 볼 수 있게 ‘e-러닝 콘텐츠’를 개발했다.

2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개발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5·18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등 인성교과서 22개 단원, 초등(5·6학년) 교과서 10개 단원 총 32개 단원에 대한 온라인 e-러닝 교육콘텐츠를 개발, 5·18교육

홈페이지(오월학교)에 탑재했다.

해당 콘텐츠는 광주지역 활동 교사가 참여한 ‘e-러닝 콘텐츠 평가회’에서 “콘텐츠가 교과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고, 10분 이내의 영상이라 주제별 수업도 일부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 받기도 했다.

재단은 개발된 e-러닝 콘텐츠를 단순한 홈페이지 탑재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초·중·고등학교(3·4학년)를 기반으로 e-러닝 콘텐츠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전두환·노태우 최초 고소’ 윤강욱 선생 별세

계엄군 맞서다 옥살이 23일 5·18 민주국민장

유신 체제와 군사 독재 반대 등 민주화 운동에 일평생을 쏟아온 윤강욱(사진) 선생이 별세했다. 향년 72세.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윤 선생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투병 생활을 하던 병원에서 숨졌다.

윤 선생은 나주 출생으로 1971년 전남대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1980년 5월 시민군에 합류했다. 25일 항쟁지 도부 결성에 동참, 지도부 기획위원으로



서 활동했다.

27일에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과 맞서다 체포돼 군법에 회부되면서 재차 10년 형을 선 고발았다.

5·18광주민주항쟁 동지회장을 맡은 1988년, 윤 선생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 9명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듬해 국회에서 열린 광주특위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전두환·노태우와 공동 출석을 요구하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94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맡은 그는 광주시의원 등을 지내다 5·18 당시 얻은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윤 선생의 빈소는 광주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3일이며 장례는 5·18민주국민장으로 치러진다.

김혜인 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